

이겨도 못 웃는 정청래...민주, 곧바로 당권경쟁 '시동'

전북 사수·지방권력 탈환 연임 속도 서울 패배에 뒷맛 개운치 않은 승리 책임론 친명-친청 갈등 예고편 전망

제9회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가 4일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로 막을 내리면서 이제 정치권의 시선은 새로 선출될 여당의 차기 대표로 향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르면 8월 전당대회를 열어 차기 대표를 선출하면서 지선 종료와 함께 차기 당권 경쟁에 시동이 걸릴 전망이다.

16개 광역단체장 선거 중 12곳의 승리를 이끈 정청래 대표의 연임 도전이 점쳐지는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와 송영길 전 대표의 출마 가능성도 함께 거론된다.

전당대회의 핵심 화두는 지방선거 성적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다수의 선거구를 되찾았지만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와 경기 평택을·부산 북갑·울산 남갑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국민의힘에 자리를 내줬다.

낙성한 승리일 수도 있지만 결정적인 실패 탓에 뼈아픈 이번 선거를 돌아보며 열리는 전당대

회는 정 대표의 연임론과 책임론이 동시에 제기 되는 가운데 당권 주자들 간의 열띤 세목이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지방 권력 교체에 이뤄낸 만큼 정 대표의 연임 가도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선 나온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장, 경남지사, 대구시장 선거도 이겼으면 금상첨화였겠다는 아쉬움도 있지만, 아쉬움이 있다고 승리가 아닌 것은 아니다"라며 "승리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북에서 이원택 후보가 무소속 김관영 후보를 꺾으면서 정 대표의 연임 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시각도 있다.

지선 승리가 정 대표의 정치적 기반을 단단하게 다져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광역단체장 후보에는 친청계나 정 대표와 성향이 유사한 강경파들이 대거 공천됐다. 일각에서는 '자기 사람'을 뽑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민심이 정 대표의 선택에 손을 들어준 모습이다.

정 대표는 전대 국면에서 지선 성적표를 자신의 성과로 내세우며 연임 명분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지선 승리를 온전히 정 대표의 '공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총괄상임대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으로 볼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최근 급등한 코스피, 국민의힘 내홍 등 외부 변수가 민주당에 유리한 투표 환경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서울·부산·경남·경북 선거와 경기 평택을·부산 북갑 국회의원 재보선 패배는 정 대표에게 뼈아픈 대목이다.

당내에서는 정 대표를 향해 격전지 패배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조짐까지 보인다.

인천 연수갑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며 국회로 복귀한 송영길 전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평택을 패배에 대해 "당 대표가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종합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당권과는 격전지 패배를 고리로 정 대표를 향한 압박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간 비당권과는 검찰개혁 추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 과정 등에서 정 대표가 독단적으로 당을 운영한다고 강하게 비판해왔다.

이번 가운데 김민석 총리는 이르면 이번 주 시위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전당대회 출마를 위한 여의도 복귀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송영길 전 대표는 라디오에서 전대 출마에 대해 "당원과 민심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송 전 대표는 라디오에서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을 잘 활용하지 못한 당의 선거 전략에 아쉬움이 크다"고 꼬집었다.

정 대표와 각을 세웠던 친명(친이재명)계 비당권파가 김 총리와 송 전 대표를 지원한다면 전당대회는 '친명과 친청' 계파 대결 구도로 흐를 수 있다.

이번 전당대회가 이토록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것은 차기 대표가 2028년 총선 공천을 주도하기 때문이다.

향후 여권의 권력 지형을 결정짓는 여당 대표가 되는 만큼 계파 간 생존 대결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地選 국민 뜻 겸허하게 받들 것...선거관리 허점 책임 물어야”

李대통령 “당 관계없이 지방정부 협력” “관계기관, 투표용지 부족 원인 밝혀야”

이재명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이틀남인 4일 “정부는 지방선거에 담긴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지방선거는 끝났다. 당선된 분들에 축하를 드리고, 아쉬운 결과를 안게 된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소속 정당의 여부와 관계 없이 새로 선출된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 과정에서의 경쟁이 어떠했던 여야는 모두 주권자를 대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더 나은 내일을 개척해야 할 동반자들”이라며 “이제 선거가 끝난 만큼 정치권도 주권자가 명령한 실질적인 민생 개선과 지역균형 발전, 국민통합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서울시장 선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당선된 것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날 이 대통령은 붉은색과 푸른색이 교차하는 사선 무늬 넥타이를 매고 회의에 참석했다.

여야의 상징색이 어우러져 있어서 '통합 넥타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대통령은 “오늘로 취임 1주년이 됐다. 이제부터 국민주권 정부 2년차 임기가 시작되

것”이라며 “모든 국민의 마음을 모아 국민 삶의 진전과 대한민국 발전에 온 힘을 쏟겠다. 공직자들도 신발 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묶고 국정 속도 배가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도 “민주공화국에서 무엇보다 철저해야 할 선거 관리에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며 선관위를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 행사 과정에 조금의 빈틈도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아쉽게 어제 서울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주민들이 큰 혼란과 불편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기관은 행정부가 가진 권한과 책임을 모두 사용해서 문제발생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또 책임질 것이 있다면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참정권이 한치라도 훼손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신뢰할 만한 적절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김진수기자

조국 “당대표직 물러날 것”

조국혁신당 조국대표는 4일 “6·3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의 이름으로 헌신한 당원동지들 앞에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지 못했다. 제가 부족했던 탓”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전날 6·3 지방선거와 함께 열린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조 대표는 국민의힘 유 의 동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에 이어 3위에 그쳐 낙선했다.

조 대표는 “저는 범민주 진영이 ‘촛불혁명’ 이후의 실패와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전과 가치 중심의 연대와 단결이 필요하다고 믿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잠시 멈추지만 당원 동지들은 당당하게 직진해달라”며 “6·3선거 결과로 인해 범민주 진영 내부 논쟁과 균열이 예상되지만, 혁신당이 12석을 가진 진보 개혁적 원내 3당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에 확실한 마침표를 찍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 대개혁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 가달라”며 “저 또한 지지하지 않았다. 자신을 성찰하고 담담질하면서 다음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철거 전문가

광주·전남 전지역 가능

- ✓ 철거 경력 20년!
- ✓ 광주·전남 전 지역 출장 가능
- ✓ 상가, 주택, 간판, 내부 철거 등
- ✓ 당일 견적 OK / 소규모 철거도 가능
- ✓ 안전·정리+깔끔함까지 책임집니다.

현주 제로레벨 ☎ 상담전화 010.9842.5570